

# ‘이순신 일대기’ 美 감동물결

## 미주 금강경독송회 영문판 무료 배포 조지워싱턴대 등서 교재 활용 의향 밝혀

미주 ‘금강경독송회’가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소개하는 영문판 책자를 제작해 미국전역에 무료배포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재미동포 불자모임 ‘금강경독송회’는 초판 <이순신 장군>(60쪽) 6000권을 발간해 미국 육사와 공사, 해사, 국무부, 각 대학 한국학과 교수 등에 무료 배포했으며 최근 5만권을 추가로 인쇄했다.

‘금강경독송회’ 뉴욕 본부의 박경원(‘한국정신문화알리기’ 프로젝트 책임자, 46)씨는 “금강경독송회 자체를 알리기도 하는 한국의 정신문화를 알리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소개하는 책자를 제작해 나눠주기로 마음을 모았다”며 “회원들이 후원금을 조금씩 모아 책자를 제작·배포하게 된 것”이라고 기자회견의 전화통화에 서 말했다.

현재 조지워싱턴대, 워튼버그대, 암스 트롱유니버시티의 역사학 교수들이 수업 교재로 이 책자를 사용할 의향을 밝혔고 메사추세츠(MIT)대학원에서는 외국인인 위한 한글 교실 교재로, 텍사스 A&M대학에서는 역사 홍보자료로, 예일대는 재학생들에게 교육용으로 전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초판이 발간되자마자 ‘그저 놀라울 따



‘금강경독송회’에서 발간한 영문판 ‘이순신 장군’.

름이다” ‘책을 추가로 보내달라’ 등의 메일이 각 지부로 쇄도하고 있으며 관련 웹사이트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링컨이나 워싱턴보다 더 지극하다’

‘기적같은 인물인 이순신의 전기가 여태 세계사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등의 소감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2005년 9월 ‘금강경독송회’ 김재용 지도법사가 회원들에게 “한국의 정신문화가 해외에서 너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역사속의 훌륭한 위인들의 삶과 정신을 전세계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뜻을 밝힌 후에 이 사업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금강경독송회’는 <이순신 장군>에 이어 선택여왕, 계백장군, 신사임당, 원효대사, 세종대왕 등 영문판 위인전을 낼 계획이다. 이밖에도 동양의 훌륭한 사상인 ‘충, 효, 의’를 소개하기 위해 효녀심청, 손순의 돌종, 흥부와 놀부, 의종은 형제 이야기 등도 외국어판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이은희 기자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 변화하는 말레이시아 불교

한국의 불교계 언론에 소개되는 해외의 불교 소식은 대부분 한 인터넷 사이트(www.buddhistchannel.tv)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다. 한국 불교도들의 시야를 넓히는데 이 사이트가 크게 기여하는 셈이다. 놀랍게도, ‘전 세계 불교 소식을 다루는 매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사이트를 설립·운영해온 주체는 흔히 ‘이슬람 국가’로 알려진 말레이시아의 불교단체 ‘불교홍법회(佛敎弘法會; The Buddhist Missionary Society)’이다.

‘불교홍법회’는 다민족·다종교·다중언어 사용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영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대불사(大佛寺; Buddhist Maha Vihara)’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인근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까지 부처님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매우 큰 후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말레이시아 인구 중 불교도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정부의 장차관에도 불차 여러 명이 진출하는 등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담마난다 스님의 상좌로, 연로한 은사스님을 대신해 실제적으로 거의 모든 활동을 지휘하는 담마라타나(Dhammaratana) 스님의 얘기가.

20여 년 전 그곳에 머물던 시절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불교가 약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쉽게 받게 된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最高)의 빌딩’으로 알려졌던 쌍둥이 건물 KLCC 4층에 있는 대형 서점 종교 코너에서도 불교 서적 수백 종을 찾을 수 있다.

주로 티베트 불교 관련 서적이 많지만, 미국과 영국 등에서 출판된 책들도 적지 않다. 시내 중심가의 대형 서점에 이처럼 불교 서적이 많아진 것은 10여

## 담마난다 스님이 이끄는 불교홍법회

### 복지·화합·인터넷 포교 모범으로 우뚝

그런데 이 불교 홍법회 본부가 있는 대불사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불교홍법회와 대불사를 50년 넘게 이끌고 있는 담 마 난 다(K. Sri Dhammananda) 스님의 책 두 권을 우리말로 번역·출판한 인연이 있어 2002년 8월에도 개인적으로 이곳을 방문하여 담마난다 스님을 만나 활동 상황을 아렴풋이 느낀 적이 있었지만, 지난 3월 4일에 다시 방문하여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하였다.

“부처님 제자로서 각자 수행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일입니다. 그 밖에 우리는 말레이시아의 전 대학교에 불교학

원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로, 이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수요 증가’와 ‘말레이시아 불교계의 발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아힘사(Ahimsa; 비폭력)’라는 범상치 않은 이념을 가진 식당에 우연히 들렀는데, 지배인의 명함 뒷면에는 “당신의 몸을 팔고, 가족을 사랑하며, 동물 살생에 반대하고, 우리의 지구를 보호하자”는 구호가 인쇄되어 있어 식당 주인이 자기보다는 시민 단체 활동가의 느낌을 강하게 준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사찰인 대불사에서 말레이시아를 넘어 동남아 여러 나라에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전파하고, 인터넷 상에서 세계 불교계를 개신교·가톨릭·시크교도 청소년 수련 명이 참석하는 종교간 대화와 화합을 위한 캠프를 개최하며, 미혼모와 사회 부적응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인신매매로 끌려와 핍박을 받거나 버려진 인근 국가 출신 여성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에는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슬람과 가톨릭 신자들도

## 스리랑카 스님 영국훈장 받아

### 바지락나나, 관용 정신 퍼뜨린 공로 인정

영국 나야크(Nayak)승단을 이끌고 있는 바지락나나(Vajiranna) 스님이 대영 제국 훈장(O.B.E.)(Officer of the Order of the British Empire)을 받았다.

“O.B.E” 훈장은 매년 영국여왕의 탄신일을 기념해 세계적인 공로를 세운 인물들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바지락나나 스님은 종파를 초월해 관용과 화합의 정신으로 종교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킨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스리랑카에서 태어난 바지락나나 스님은 1943년 스리랑카 히플라라 한 사찰에서 사미계를, 1949년 칸디의 말라투 사원에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1966년 서구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 런던불교사의 부주지가 되어 영어

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이후 1984년 런던불교사의 주지로서 불교 교육프로그램의 부활 및 확대에 힘썼다.

1987년에 바지락나나 스님은 범종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했다. 불교, 힌두교, 기독교 등 9개 종교가 참여한 범종교 네트워크는 영국내 다양한 종교에 대한 존중과 관용의 정신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된 단체로서 각 종교의 대표기구를 포함한 80개 단체를 포괄했다.

1999년 스님은 종교를 초월한 아동후원 단체인 ‘라홀라 트러스트’ 재단을 설립했다. ‘라홀라’ 재단은 스리랑카, 네팔, 케냐 등지의 빈곤한 아동들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은희 기자

## 평화경기 캠페인 참여 불자 18일 보스턴 평화시위 합류

지난 2월 19일 미국 레버렛 ‘불교평화탑’에서 시작된 평화경기 캠페인에 참여한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3월 15일 메사추세츠주 링햄에 도착해 ‘평화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또 이곳에서 ‘평화와 평등을 위한 지역·국가간 방향모색’을 주제로 다

양한 활동을 벌였다.

특히 이번 ‘행평 평화 프로그램’에는 메사추세츠 주정부 관계자들과 교회성직자 및 시민들이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평화경기 캠페인 관계자들은 이번 캠페인에서 20년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시작된 ‘평화를 위한 시장단’ 프로그램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3월18일 제2차 결프전 발발 3주년을 맞아 보스턴에서 열리는 평화집회에도 참여한다.

이은희 기자

## 태국 우타마 스님 96세 생일기념 수계식

태국의 고승 파라 우타마(Phara Utama) 스님이 자신의 96세 생일을 기념해 3월2일 태국 상클라부리의 왕카마을에서 수백 명의 수계식을 거행했다.

이날 수계식에서는 전통의상을 입은 천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공양물을 들고 마을에서 사찰까지 줄을 잇는 광경을 연출했다.

이전에 파라 우타마 스님은 개별적인 수

계를 해오다가 지난 해부터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단체로 수계식을 거행하게 됐다.

한편 파라 우타마 스님은 30여 년 전 왕카 마을을 세워 많은 사람들이 미얀마에서 이곳으로 이주해왔고 최근에 그중 약 2000명이 태국국적을 취득했다. 이 마을은 민족의 문화와 풍습을 고수해오고 있다. 민족출신의 우타마 스님은 태국에서 수십년간 불교를 포교해 왔다.

이은희 기자

## 러 부랴트에 사찰 ‘데바진’ 개원

러시아 불교의 중심지인 부랴트 공화국이 최근 10년간 불교건축공사를 진행, 사찰 20여 개를 새로 건립하거나 복원하는 등 불교 중흥에 나서고 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부랴트 공화국이 지난 2월 울란-우데의 근교에서 새로운 사찰 ‘데바진(Devazhin)’을 개원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데바진’ 사찰 주지 바이르 스님은 “2만 5000여 명의 신도들이 기와불사에 동참한 덕에 사찰을 조성할 수 있었다”며 “4개월간의 외벽공사가 끝나고 몽골과 부랴트 조각가들이 40여 구의 불상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데바진’ 사찰은 최근 부랴트에서 대규모의 사찰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개원한 것이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부랴트 공화국 수도 울란-우데 서쪽으로 30km 떨어진 곳에는 시베리아에 진출



부랴트 공화국에서는 최근 불교사찰들이 연이어 건립되고 있다. 사진은 부랴트 공화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이블긴스키다.

한 티베트 불교의 총본산인 이블긴스키 다친(사원)이 위치해 있어 이 지역 일대가 대규모 불교단지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부랴트 불자들은 이블긴스키 다친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부랴트 공화국 정부는 부랴트내의 불교 사찰 건설 및 복원을 위해 올해 연방 예산에서 약 100만 루블의 지원금을 배당할 계획이다.

이은희 기자

# 공 고

대한불교 원효종 임시종정 종령 제 603-1호

### 귀의 삼보하옵고

전국의 대한불교 원효종 종도 여러분! 병술년(丙戌年) 새봄을 맞이하여, 사찰 운영과 모든 뜻하시는 일들이 새봄의 기운과 함께 일익 화창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1. 그동안 우리 종단은 범종 종정스님 임직 이후 혼미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는, 중도 원효성사의 화쟁정신을 망각한 몇몇 지각없는 자들의 증견에 대한 아량으로 종단이 양분되어 심지어 법정시비 까지 야기되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2.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의 일체 시비 분쟁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모두 삼보전에 참회하고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상구부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보살도를 실천하기 위해 정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3. 이제 종단분규를 원만히 수습하고 화합된 종단을 이룩하려는 큰 뜻으로, 2005년 12월 14일자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5 비합 278 임시종정 선임”결정으로 노남(老衲)이 ‘대한불교 원효종 임시종정’의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4. 따라서 본인은 일체의 분파(서울, 부산) 관념을 초월하여 오로지 종정종심제의 중현종법에 따라 종단이 정상화 될때까지 공정하고 민주적인 신념으로 임시종정체제로 운영할 것을 천명합니다.
5. 임시 종정체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중무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가. 임시종정체제에서는 모든 중무운영과 그 집행은 중현, 종법에 따라 시행한다.
- 나. 모든 중무집행의 인장은 ‘임시종정’ 직인(사인)을 사용하며 그 이전(임시종정 선임 판결이전) 시비 당사자들이 사용한 모든 인장은 무효임을 공고한다.

- 다. 중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임시 종무사무소를 경주시에 둔다.(단, 종단이 정상화 되면 협의에 따라 적절한 곳으로 옮길수 있다)
- 라. 전국의 본 종단 소속 사암을 지역별로 정형하게 파악하여 균형있게 교구를 편성하고 각 교구도 철저히 조직하여 교구다운 교구로 활성화 한다.
- 마. 기존 등록사암과 임직(入籍)승려는 ‘서울축’ (송무진축)이든 ‘부산축’ (최덕산축)이든 신고만 하면 되고, 현재 분파되어 있는 여타 단체와 사암들 또는 신규가입을 원하는 사암이나 승려들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내면 심사후 긍정적으로 포용한다.
- 바. 새로운 화합으로 종단계건의 차원에서 모든 파벌관념을 초월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등용하며, 재교육을 통해서 종도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 사. 종전과 같이 종단 임원 일부의 전횡으로 운영되던 종단을 전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민주중단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다.
- 아. 금후 중현종법에 따른 원만한 정상종단 구성을 위해서 전 종도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그 일시와 장소는 추후 서면통지 및 신문공고토록 한다.
- 자. 위의 각 항목에 대한 시행은 신문공고일로부터 한다.



직인



개인



사인(사인)

불기 2950년(2006년) 3월 8일

## 대한불교 원효종 임시종정 김대관(벽송)

경북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1502-2번지 대원사 내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무소 054)776-1757